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 으로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권유하신다

... 바벨론(사악함)에서 나감(교리와 성약 133:4~5, 7, 12~14 참조)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던 당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바벨론의 고대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찬란함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세속적인 면과 사악함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라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 우리는 주변의 압력에 미동하지 않고, 유행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휩쓸리지 않으며, 사악한 자의 조롱을 꾀념하지 않고, 악한 자의 유혹에 저항하며, 자신의 태만을 극복해야 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77~78쪽)

... 이스라엘을 집합시킴(교리와 성약 133:4, 7~9, 37~38 참조)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었다.



회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필수적인 침례와 성전 의식들을 받도록 돕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언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것입니다. 것처럼 단순합니다.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broadcasts.ChurchofJesusChrist.org)

...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결하게 됨(교리와 성약 133:5, 16, 34~35, 62 참조)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한 캐럴 에프 맥콩키 자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흠 없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 침례를 받으며 마음을 열고 성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성결해집니다. 매주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의로움을 갈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분의 영광과 함께하도록 성약을 맺습니다. (캐럴 에프 맥콩키, “아름답고 거룩한 것”,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0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